

어느 현실주의자의 탄지 걸기

75호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를 읽고

글쓴이: 조영은

저는 임상심리를 전공하고 병원에서 심리학을 날개 삼아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들레』 75호에 실린 오자와 님의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란 도전적인 제목의 강연록을 읽고 머릿속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더불어 마음도 착잡해졌지요.

제가 병원에서 심리학자로 일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스스로에게 던지곤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환자를 위해 이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의문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기에 이 글에서 보여주는 문제 의식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같은 분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자와 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빈다. 하지만 심리학의 ‘착한’ 측면은 잘 비추어지지 않은 것 같아 오해를 좀 풀고 균형을 잡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능검사는 단지 아이들을 나누기 위한 것인가

학교에서 지능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규모로 ‘대충’ 지능검사를 실시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점수, 지능지수는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서열화하거나 구분하는 데 쓰이는 게 맞습니다.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와 아닌 아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에 순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인 것입니다.

오자와 님 말마따나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아이들, 지능지수의 기준에 따라 ‘정신지체’로 분류되는 아이들은 특별 관리대상이 됩니다. 특수학급에 편성되거나 특수학교 진학을 권유받게 되죠.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신지체가 의심되어 심리평가를 의뢰한 아이들을 자주 만납니다. 대개는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특수학교 진학을 권유받아 병원을 찾습니다.

혹은 아이가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의사표현을 못하고, 또래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느리고 둔해서 부모가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 의해 나쁜 일(도둑질, 소매치기, 폭력 등)에 자꾸 이용당해 경찰서를 전전하다가 의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능검사¹⁾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해서 뭘하느냐고요? 장애 판정을 통해 국가 지원(복지혜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아이들을 알아차리고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를 비롯한 여러 검사 결과 정신지체 기준에 해당하면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나누는 검사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눈다’라고 할 때,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눈다기 보다는 인지적 능력이란 측면에서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아이들을 알아차리고 ‘보호’해준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이 아이들을 특수학급에 편성함으로써 아이들을 보고하고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물론 한 반 30-40명의 아이들 속에 정신지체 아이들이 섞여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사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당사자인 아이입니다.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는 아이들은, 지금 같은 교육 현장에서 일반 아이들 속에 섞여 있을 경우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당하고 이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왜인지는 모른 채 점점 우울해지고 위축되는 악순환을 겪곤 합니다.

제가 심리평가를 담당했던 한 아이는 반 친구들에게 계속 속고 이용당하면서 시키는 대로 도둑질을 반복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도 용돈도 계속 빼앗겼죠. 그러면서도 마냥 좋은 친구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울해지기만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심성은 착한데 친구들이 시키는 걸 다 한다면서요. 부모가 반복해서 타이르고 혼내도 소용이 없었는데, 지능검사를 해보니 정신지체에 속했습니다. 부모가 무척 마음아파하긴 했지만,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대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걸 깨닫고 가셨습니다. 아이가 어찌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순수하고 여린 마

1) 지능검사도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학교에서 쓰이는 것은 주로 언어 능력, 오자와 님 말처럼 언어 능력 가운데서도 추상적 사고와 관련된 기호적 사고를 측정하는 지능검사가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을 갖고 있으니 보호받으며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라는 것을 아신 거죠. 이런 사례는 현장에서 수두룩합니다. 지능검사가 인지적, 사회적 능력 측면에서 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사례 말이죠.

현실을 직면하고 이해를 넓히는 과정

오자와 님은 지난호 글에서 지능의 개념, 지능지수의 효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지능의 개념을 단지 ‘기호적 사고’에 한정시키고 논의를 진행시켰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심리학자들이 지능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기호적 사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능검사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물론 기호적 사고력만 측정하는 검사도 있죠. 교육현장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는 지능검사는, 비용과 시간의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지필식 검사(학교에서 시험보듯 치루는 지능검사)가 주가 될 것입니다. 기호적 사고력은 지필식 검사를 통해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지능검사가 기호적 사고력에 많은 비중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하지만 학교에서 쓰인다는 그 검사가 무엇인지,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한 이것도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지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직도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인간의 능력들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검사도 종류가 많고, 하나의 지능검사에서도 11-13개의 능력을 영역별로 측정하곤 합니다. 기호적 사고력은 그 중 아주 일부분일 뿐인 것이죠.

문제는 학교에서 측정한 지능을 단순하게 일반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뭘 측정하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시험 보듯 대규모로 치른 지능검사에서 도출된 수치를 아이에게 단순하게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능력까지 그 하나의 수치에 요약되는 것이라고 교사나 부모가 철썩같이 믿는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지능검사가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지능지수를 아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능지수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이에게 한계를 지우는 유리천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자와 님의 문제의식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호적 사고력만을 측정해서는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능검사에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다면, 창의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더욱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겠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지능검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능검사가 일종의 문제풀이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고, 창의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²⁾ 문제는 지능지수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수치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맹신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자와 님이 지적해준 부분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운슬링, 친절한 얼굴을 한 관리수법?

심리상담도 관련된 다양한 학파가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오자와 님 글에서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상담요법만을 근거로 심리상담의 효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자신이 상담을 받았던 주관적 경험을 근거로 심리상담의 효용, 목적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일반화시켰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무수한 사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오자와 님은 무수한 상담 방식 중에서도 칼로저스식 상담에만 국한해 논의를 전개했으므로, 저도 논의의 초점을 거기에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칼 로저스는 상담에서 ‘무조건적인 수용’과 ‘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카운슬러가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내담자가 자발성을 찾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칼 로저스식 상담은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상대가 가진 가능성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이든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받아들여주죠. 벽에 막히지 않고, 타인의 판단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사실은 상담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요? 글썬요. 오자와 님은 자신이 좋은 아이 클라이언트를 연기하게 되어 결국엔 바람직한 정답을 찾

2) 지능검사는 심리학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성격적인 감정, 창의성 등도 측정하고자 연구하고 있죠. 인간을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냈다는 걸 근거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오자와 님 개인이 가진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모든 내담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자발성을 찾아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대로 된 상담이죠. 칼 로저스가 제시한 인간중심적 상담은 오자와 님이 이해하고 경험한 상담과는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자와 님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근거는 칼 로저스식 상담 자체, 혹은 심리상담 전반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권력구조 상부의 가치관을 철저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온화한 척하며 아이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어떤 상담자’에 대한 비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자와 님의 말처럼 이 세상에 정말 마음 전문가가 필요 없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언제나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에게 심리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 마음 전문가인 제게까지 인연이 닿았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를 죽여 버리겠다는 내담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계속 왕따를 당해 자살해 버리겠다는 내담자. 새아버지가 자신을 계속 성폭행했는데 엄마가 나 몰라라 방치해 두었다며 과거를 곱씹는 내담자.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신을 버려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학대 받았다는 내담자. 자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자살한 후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내담자.... 그들이 마음 전문가를 찾아올 필요도 없게끔 부모, 교사, 친구, 동료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오자와 님은 부모자식의 생활이 전문가에게 맡겨지지 않는 이상향을 제시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염려하고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아주 소박한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면서요. 저도 바라는 바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현실적인 한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염려하고 아이도 부모를 가장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그들도 잘못된 의사소통 패턴 때문에 진심을 전하지 못하고 오해가 쌓여 서로를 증오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갈등을 풀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지만 대화를 할수록 갈등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수두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며 중재할 수 있는 제3자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오랜 세월 심리

학을 공부하며 경험을 쌓은 마음 전문가가 나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자와 님은 전문가의 존재 효용 자체에 대해 따지기보다는 부모와 교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먼저 교사와 부모의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자와 님 말씀처럼 마음을 돌보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전문가가 필요없게끔 우리가 일상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돌본다면 참 좋겠습니다. 상품화된 상담을 일상의 일로 복원하고 되돌릴 수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로 살 것인가

일개 심리학자로 살아가는 것과 공공선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중 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평가를 하며 고민합니다. 내가 어떤 심리평가보고서를 써야 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까, 내담자가 손에 쥐게 될 너댓 장의 글을 쓰면서 한 마디, 한 줄을 고심합니다. 이 내담자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을까, 환경의 여러 측면이 영향을 주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고통에서 벗어날 한줄기 빛이 될까... 심리학자가 하는 일들은 고통에 시달리는 개인을 돕고자 하는 시도이지 순진한 대중들을 조작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의 토대를 마련한 계층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학문적 연구결과가 정치적 목적으로 교묘히 이용되기도 하지요. 심리학 또한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기에 그 일부가 인간을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리학이라는 도구는 사람이나 조직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착한’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자와 님의 글은 교사와 부모, 특히 심리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너무 심리학에만 빠져 살다 보면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ADHD 진단을 내리고 그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과제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교육과정의 전제에 의문을 품을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적응장애 진단을 내리고 그 마음을 품어줄 줄은 알아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대교육시스템

이 가진 문제점을 들여다보려 시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보다는 개인의 마음에 현미경을 들이대는 과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환경의 영향, 사회의 병리까지 고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말이죠. 저 또한 무심코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서 찾고자 하는 습관이 들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학문을 더 깊이 하더라도 사회와의 접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자와 님 글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초심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심리학은 ‘착한’학문이어야 하고, 저 또한 늘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심리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